

크리스마스 선물

주광국(68 년)

긱은비가 내리던 2018 년 12 월 16 일 일요일 오후에 작은딸이 살고있는 L.A.로 여행을 떠났다. Southern California 로 떠나는 겨울의 여행은 항상 즐거웠다. 매일 쾌청하고 따듯한 날씨에 또 많은 고교 및 대학 동기들이 있어 더욱 더 좋았다. 이번 여행은 큰딸과 2 살 된 손자와 함께 여행을 떠났다. 사위는 일에 쫓겨 휴가를 얻지 못하고 일 주일 후에 Atlanta 의 시덱에서 만나기로 해서 내가 그들의 짐을 운반해야 했다. 우리는 먼저 Washington Reagan Airport 에 도착해서 Boarding Pass 를 만들었고 의자에 앉아 큰딸과 손자가 오기를 기다렸다.

Delta Air 의 Departure Terminal 에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받고 달려나가 손자의 car seat 와 2 luggages 를 받아서 car seat 는 화물로 부치고 luggage 를 가지고 곧바로 Gate 로 향했다. 아랫 층으로 내려가서 똑바로 직진하여 TSA Inspection Station 에 도착했다. 검열대에 가지고 온 우리 짐 2 개와 큰딸의 짐 2 개를 검열대에 올라 놓았다. 그때 집에서 가지고 온 Computer 가 들어있는 Computer suitcase 가 보이질 않았다. 순간 큰딸이 오기를 기다리고 앉아있었던 의자에 Suitcase 를 두고온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길로 검열대를 뛰어나와 처음에 앉아 있었던 의자 쪽으로 뛰어 달렸다. 너무 당황하여 머리속이 하얘져서 앉아 있었던 장소를 찾을 수가 없었고 또 비행기 출발시간이 얼마남지 않아 TSA Station 으로 빨리 돌아가야 했다. 혈떡거리며 돌아와 Security Personnel 에게 컴퓨터가방을 공항의자에 두고온 사실을 이야기하여 협조를 구했으나 지금 이 시각에 할 수 있는 일은 Lost & Found 에 보고하는 일 뿐이었다.

어깨가 축 쳐지고 착잡한 마음으로 비행기에 탑승한 후 L.A.에 있는 작은딸에게 전화했다. 지금 비행기가 곧 출발할 것과 컴퓨터가방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렸다. 아내는 컴퓨터를 잃어버려 모든 우리의 인적사항과 중요한 서류가 노출되는 것을 무척 우려했다. 나는 Password 를 알아야 컴퓨터가 열린다고 안심을 시켰지만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쉽게 열릴거라고 생각했다. 사실 컴퓨터는 나의 생활의 일부 아니 나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 TV 를 바보상자라 부르는데 컴퓨터는 천재상자 또는 두뇌상자라 불러야 될 것 같다. 사실 컴퓨터에는 많은 것이 저장되어 있었다. 일상 생활에 필요한 많은 정보 및 서류, 나의 두뇌에 보관할 수 없는 그러나 기억하고 싶은 상식, 지식과 유모아등, 보관해온 많은 사진과 비데오 파일, 그리고 여러 편의 영화,

드라마, 여행기, 음악 및 스포츠 프로그램, 골프 Lesson 등등 많은 information 파일이 들어있었다. 또 서울의대 미주동창회 Website (snucmaaus.org)의 Web Master 로 일하면서 프로그램을 위한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어 컴퓨터가 분실되면 곤란한 일이 많이 생길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비행기가 L.A. 공항에 착륙 하자마자 마중나온 작은딸에게 알렸다. 그런데 뜻밖에 좋은 소식을 받았다. Reagan Airport 에서 나의 컴퓨터를 찾아서 Airport Police 가 보관 중이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너무 너무 기뻐다. 루카복음서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과 은전과 아들을 되찾는 비유 말씀이 떠올랐다. 잃어버린 양 한마리를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는 성경 구절이 떠올랐다. 나는 나대로 요사이 테러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 주인 없는 검은 가방이 공항의자에 놓여 있으면 누군가가 Security 나 Police 에 보고하여 보관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었다.

공항을 빠져나와 작은딸 집에 도착하여 늦은 저녁을 먹으면서 그간의 이야기를 들었다. 작은딸은 나에게서 컴퓨터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즉시 Washington Reagan Airport 에 전화를 해서 컴퓨터가 들어있는 Suitcase 를 공항의자에 두고 비행기를 탔다고 하여 협조를 구했으나 지금 일요일 오후라 다음 날 Lost & Found 에 전화해 보라고 전화번호만 받았다. 곧 다시 Airport Information 에 전화해서 한 시간전에 컴퓨터가방을 공항의자에 두고 탑승했으니 그 자리에 가서 체크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지금 자기 자리를 비울 수가 없다고 하고 Check-in 한 Delta Air 로 연결시켜 주었다고 한다. Delta Air 에서도 많은 승객들이 왔다갔다하고 바빠서 협조할 수 없다는 답만 들었다. 급한 마음에 다시 Information Desk 에 전화해서 사정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지금 아버지가 컴퓨터를 분실해서 어머니한테 많은 핀잔과 야단을 맞으며 결국 부부싸움으로 번져 즐겁게 계획했던 휴가를 망치게 되므로 누군가 컴퓨터가방을 놓았었던 Delta Air 근처 의자석을 돌아봐 달라고 간청했다. 전화를 받은 Barbara 가 자신이 그 주위를 돌아보겠다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받아 연락해 주겠다고 했었다. 약 한 시간이 지난뒤 Barbara 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는 Delta Air 근처에서 TSA Station 까지 돌아보면서 찾았으나 가방을 찾지 못했다. 그는 만나는 Security Personnel 이나 Police 를 보면 컴퓨터가방 이야기를 하면서 협조를 부탁했다고 했다. 그런데 누군가 나의 컴퓨터가방을 Security 에게 알려서 절차에 따라 Police 에 보고되고 그곳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Barbara 가 연락을 받고 나의 작은딸에게 전화해서 나의 컴퓨터가 Police 에 보관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Police 에 전화하니 컴퓨터가방을 체크하고 Lost & Found 로 보냈다고 했다. 그곳에 연락하니 워싱턴으로 돌아올 때 찾아가던가 아니면 Fedex 로 작은딸 집으로 보내줄 수 있다고 한다.

3 일 후에 드디어 그동안 가슴을 졸이고 있었던 나에게 컴퓨터가 돌아왔다. 성탄절을 몇일 앞두고 받은 아주 기분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다. 나의 두 딸의 노력과 Reagan Airport Information Desk 에 있는 Barbara 의 봉사 협조로 나의 California 여행은 한결 더 기분 좋은 즐거운 여행이 되었다. 참으로 미국이 양심적이고 능률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일이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다시 한번 미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